

고전 시가 01

작자 미상, 「구지가」

작품 해석의 객관적 기준

○ 「구지가」

: 소원의 성취를 목적으로 하여 불린 노래

: 가락국 시조의 탄생 신화에 전해지는 노래

: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에 따라 사람들이 임금의 도래를 기원하며 불렀다는 기록 → 집단적인 무가의 성격

거북이라는 외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 함

거북아 거북아

반응을 요구하는 대상을 반복해 말하고 있음

머리를 내어라

집단적 성격의 소원(임금의 도래 기원)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대상에 대한 위협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 함

고전 시가 01

작자 미상, 「원왕생가」

작품 해석의 객관적 기준

- 「원왕생가」 작품에 나타난 소원이 개인 구제의 성격을 지님
- : 소원의 성취를 목적으로 하여 불린 노래
- : 서방정토로의 왕생을 아미타불에게 비는 내용을 담은 불교적 성격의 향가
- : 화자가 호명하는 절대자는 작품의 불교적 성격을 드러냄
- : 아미타불은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염원을 품고, 아미타불을 의지하여 염불하는 모든 신도를 구제하여 극락 정토에 태어나게 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48개의 맹세를 제시함

달이 어찌서
‘무량수불’과 화자를 연결해 주는 매개체
서방까지 가시겠습니까
화자가 가고자 하나 마음대로 갈 수 없는 먼 곳으로, 현실을 초월한 공간
무량수불 전에

보고의 말씀 빠짐없이 사뢰소서
‘왕생’을 그리는 사람이 있음을 알리는 내용
서원(誓願) 깊으신 부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두 손 곧추 모아
화자의 간절한 태도를 형상화한 것
원왕생* 원왕생

그리는 이 있다 사뢰소서
‘그리는 이’와 ‘이 몸’은 동일한 존재를 가리킴
아아, 이 몸 남겨 두고

사십팔대원 이루실까 ‘가시겠습니까’, ‘이루실까’ 등의 의문형 어미를 사용
: 자신의 바람을 완곡하게 표현

* 원왕생 : 부처의 구원을 받아 극락으로 가기를 바램.

고전 시가 02

작자 미상, 「청산별곡」

작품 해석의 객관적 기준 ①

○ 「청산별곡」의 시적 화자와 주제에 대한 견해

- ① 실연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거나 사별한 상황에서 그 슬픔을 나타낸 노래
- ② 유랑민: 난리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거나 지배층의 착취로 토지를 빼앗기고 떠도는 유랑민들의 고통과 비애를 읊은 노래
- ③ 속세를 떠난 은자(隱者) 혹은 지식인: 권력의 횡포나 외세의 침략 등으로 인해 속세에 염증을 느끼고 숨어 사는 은자의 인생관을 노래한 작품

작품 해석의 객관적 기준 ②

○ 문장의 종결 방식

: 시의 어조를 분석함으로써 주체의 감성이 변모하는 양상을 추론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청산별곡」 각 연의 종결 방식을 고찰함으로써 화자의 정서 및 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음

○ 「청산별곡」의 각 연의 문장들에 사용된 종결 방식

1연	평서	2연	감탄, 평서
3연	의문	4연	감탄, 의문
5연	의문, 평서	6연	평서
7연	감탄	8연	감탄, 의문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득래랑 먹고 청산에 살어리랏다

얄리얄리 얄랑성 얄라리 얄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감탄문과 그에 이어지는 호격 표현을 통해 깊은 시름에 젖어 있는 화자의 정서를 나타냄

넌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얄리얄리 얄랑성 얄라리 얄라

평서문 종결 방식의 반복적인 사용을 통해 화자의 의지적인 태도를 점층적으로 제시함

유랑민의 입장에서 ‘새’를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로 보면, ‘새’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지 못하고 떠돌아야만 했던 유랑민의 심정이 투영된 대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동일한 율격을 반복하고 특정 음운들을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함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이랑공 더랑공 햏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쫓 엇디 호리라

의문형 종결 방식을 이용하여 암담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정서를 강조함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유랑민의 입장에서 ‘돌’을 화자의 내면과 관련지어 보면,
‘돌’은 농민을 울게 만든 요인을 의미함

어디랴 더디던 돌코 누리랴 마치던 돌코

의문형 종결 방식을 이용하여 암담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정서를 강조함
미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랴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평서문 종결 방식의 반복적인 사용을 통해 화자의 의지적인 태도를 점층적으로 제시함

늑 믑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르래 살어리랏다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가다가 가다가 드로랴 예정지 가다가 드로랴

사스미 짚대에 올라셔 햏금을 햏거를 드로랴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지식인의 입장에서 ‘강수’를 당대의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 보면,
‘강수’는 내면의 고뇌, 갈등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

가다니 빅브른 도끼 설진 강수를 비조랴

감탄문을 제시한 후 의문문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 내면의 고뇌를 해소하고 싶어 하는 마음과 체념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음

조롱곳 누르기 밭와 잡스와니 내 엇디 햏리잇고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고전 시가 03

성삼문, 「이 몸이 주거 가서」

작품 해석의 객관적 기준

○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 다른 상황을 상정해 보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소하기

- ① 불가능한 상황을 상상
 - ② 현세 이후를 떠올림
 - ③ 선언적 태도를 취하는 것
 - ④ 시간을 되돌려 놓거나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꿈을 갈등의 해소 방식으로 삼음
 - ⑤ 상황을 우스운 것으로 만들어 갈등을 극복해 보려는 희화화의 방식
- 다양한 갈등 해결 방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시도 없이 갈등을 남겨 두게 된다면, 그 갈등은 시조 작품 안에서 한(恨)으로 나타나게 됨

이 몸이 주거 가서 무어시 될꼬 하니 '이 몸이 주거 가서'라고 현세 이후를 떠올리며 '~리라'라는 선언적 태도를 드러냄으로써 갈등을 해결

봉래산(蓬萊山) 제일봉(第一峯)에 낙락장송(落落長松) 되야 이셔

자신을 '낙락장송'에 빗대며 정서를 표현하고 있음

백설(白雪)이 만건곤(滿乾坤) 홀 제 독야청청(獨也靑靑)하니리라
위세를 떨치고 있는 부정적인 존재

눈의 흰색과 소나무의 푸른색을 대조하며 자신의 절개를 강조하고 비장한 분위기를 드러냄

작품의 화자는 굳은 다짐을 드러내고 있음

고전 시가 03

박효관, 「꿈에 왔던 님이」

작품 해석의 객관적 기준

○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 다른 상황을 상정해 보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소하기

- ① 불가능한 상황을 상상
 - ② 현세 이후를 떠올림
 - ③ 선언적 태도를 취하는 것
 - ④ 시간을 되돌려 놓거나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꿈을 갈등의 해소 방식으로 삼음
 - ⑤ 상황을 우스운 것으로 만들어 갈등을 극복해 보려는 희화화의 방식
- 다양한 갈등 해결 방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시도 없이 갈등을 남겨 두게 된다면, 그 갈등은 시조 작품 안에서 한(恨)으로 나타나게 됨

꿈에 왔던 님이 켜여 보니 간 디 업니

탐탐(耽耽)이 괴던 스랑 날 브리고 어디 간고

‘탐탐이 괴던’ 임이 떠나고 없는 갈등 상황

꿈속이 허사(虛事) | 라 만정 자로 보게 하여라

갈등 상황을 ‘꿈’이라는 비현실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임과의 만남을 통해 해소하고자 함

작품의 화자는 ‘꿈속이 허사’임을 알고도 꿈에서나마 임을 자주 볼 수 있기를 바램으로써 꿈을 통해서나마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임

작품의 화자는 간절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음

고전 시가 03

작자 미상, 「창 내고져 창을 내고져」

작품 해석의 객관적 기준

○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 다른 상황을 상정해 보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소하기

- ① 불가능한 상황을 상상
 - ② 현세 이후를 떠올림
 - ③ 선언적 태도를 취하는 것
 - ④ 시간을 되돌려 놓거나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꿈을 갈등의 해소 방식으로 삼음
 - ⑤ 상황을 우스운 것으로 만들어 갈등을 극복해 보려는 희화화의 방식
- 다양한 갈등 해결 방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시도 없이 갈등을 남겨 두게 된다면, 그 갈등은 시조 작품 안에서 한(恨)으로 나타나게 됨

창(窓) 내고져 창을 내고져 **이내 가슴의 창** 내고져

고모장죽* 세슬장죽* **꺾로다지*** 여다지*에 **암돌져귀 수돌져귀*** 크나큰 창
창문의 종류와 창문을 만드는 과정을 수다스럽게 늘어놓아 괴로운 상황을 희화화함으로써 갈등 상황을 극복해 보려는 의도
도리*로 **쭈쭈 박아** **이내 가슴에 창** 내고져

잇다감 하 **답답홀 지 여다져나** 불가 **호노라**
불가능한 상황을 상상함으로써 갈등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있음

*고모장죽 : 고무래 들창.

*세슬장죽 : 문살이 가는 장지문.

*꺾로다지 : 옆으로 밀면서 여는 문.

*여다지 : 안팎으로 밀거나 당겨서 여는 문.

*암돌져귀 수돌져귀 : 문설주에 박는 구멍 난 돌쩌귀와 문짝에 박는 돌쩌귀. 서로 짝을 이룸.

*장도리 : 못을 박거나 뽑는 데 사용하는 공구.

고전 시가 04

윤선도, 「어부사시사」

작품 해석의 객관적 기준 ①

○ 「어부사시사」

- : 속세를 떠나 자연을 즐기는 어부의 삶을 주제로 하고 있는 작품
- : 윤선도는 이 작품이 이현보와 같은 선배 문인들이 즐기던 「어부가」 계열의 작품들을 계승한 것이라 밝힘
- : 기존의 「어부가」 계열 작품들을 자신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네 계절을 각각 10수로, 총 40수의 작품 창작
- : 이 작품의 뒤에 「어부사여음」을 덧붙여 작품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내용을 드러냄

○ 「어부가」 계열의 작품 계승과 관련한 선행 작품

이 등에 시름업스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이로다
「어부단가」와 「어부사시사」의 어부는 생업으로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음
 일엽편주(一葉扁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화려하지 않고 소박한 모습의 배
 인세(人世)를 다 니젧거니 날 가는 줄를 안가

○ 「어부사여음」: 작품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내용

강산(江山)이 도타 혼들 내 분(分)으로 누엇느냐
 님군 은혜(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어부사여음」을 통해 「어부사시사」의 작가가 사대부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았음을 환기
 아프리 갑고자 하야도 하올 일이 업세라

- 이현보, 「어부단가(漁父短歌)」 제1수

모두 어부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나타남

- 윤선도, 「어부사여음(漁父詞餘音)」

작품 해석의 객관적 기준 ②

「어부사시사」의 각 연이 취하는 구조: 초장 - 후렴구 1 - 중장 - 후렴구 2 - 종장

	후렴구 1	후렴구 2
공통점	배의 움직임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활용 후렴구의 삽입으로 각 연이 평시조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	
차이점	시간의 흐름과 연관	시간과 관계없이 반복
	배의 이동 과정을 드러냄	노 젓는 소리를 묘사

물외(物外)에 조흔 일이 어부(漁父) 생애(生涯) 아니러냐

빅 떠라 빅 떠라

어옹(漁翁)을 웅디 마라 그림마다 그렸더라

지국총(至菊叢) 지국총(至菊叢) 어스와의(於思臥)

스시(四時) 흥(興)이 흔가지나 추강(秋江)이 음듬이라

<추(秋) 1>

슈국(水國)의 ㄴ 올히 드니 고기마다 슬져 일다
 달 드러라 달 드러라
 만경 덩파(萬頃澄波)의 슬궤지 용여(容與)ᄒ자*
 지국총(至芻兪) 지국총(至芻兪) 어스와(於思臥)
 인간(人間)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욱 도타

<추(秋) 2>

<추 2> : 속세에 대한 거부감을 강조함

웃 우회 서리 오되 치운 줄을 모를로다
 달 디여라 달 디여라
 도선(釣船)이 좁다 ᄒ나 부세(浮世)와 얼더ᄒ니
 지국총(至芻兪) 지국총(至芻兪) 어스와(於思臥)

네일도 이리ᄒ고 모되도 이리ᄒ자
 현재의 즐거움을 오랫동안 누리려는 소망을 제시

<추(秋) 9>

송간 석실(松間石室)의 가 효월(曉月)*을 보자 ᄒ니
 빅 브터라 빅 브터라

공산 낙엽(空山落葉)의 길흘 었디 아라볼고
 적막한 산에 쌓인 낙엽으로 인해 길을 쉽게 찾지 못하는 모습
 지국총(至芻兪) 지국총(至芻兪) 어스와(於思臥)

빅운(白雲)이 좇차오니 녀라의(女蘿衣)* 므겁고야

<추(秋) 10>

구름 거든 후의 흰빈치 두텁거다
 빅 떠라 빅 떠라
 텃디 폐식(天地閉塞)호되 바다흔 의구(依舊)ᄒ다*
 지국총(至芻兪) 지국총(至芻兪) 어스와(於思臥)

ㄴ업슨 물결이 겁 편 듯ᄒ여 있다
 끝없이 펼쳐진 물결의 모습을 비유를 활용해 나타내고 있음

<동(冬) 1>

간밤의 눈 갠 후(後)에 경물(景物)이 달랑고야
 이어라 이어라
 압희는 만경류리(萬頃琉璃)* 뒤희는 천텃옥산(千疊玉山)*
 지국총(至芻兪) 지국총(至芻兪) 어스와(於思臥)

선계(仙界)ㄴ가 불계(佛界)ㄴ가 인간(人間)이 아니로다

<동(冬) 4>

<동 4> :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을 강조함

* 용여ᄒ자 : 한가하고 평화롭게 지내자.

* 녀라의 : 은자의 옷.

* 만경류리 : 유리처럼 반반하고 아름다운 바다.

* 효월 : 새벽달.

* 의구ᄒ다 : 옛날과 같다.

* 천텃옥산 : 수없이 겹쳐 있는 아름다운 산.

몹스 ㄱ의 외로운 술 혼자 어이 식식혼고
홀로 서 있는 소나무의 모습에 화자의 감정이 이입
비 댕여라 비 댕여라

머흔 구름 혼(恨)티 마라 세상(世上)을 ㄱ리온다

지국총(至芻兪) 지국총(至芻兪) 어스와(於思臥)

파랑성(波浪聲)*을 염(厭)티 마라 딴훤(塵喧)*을 막는 또다 <동(冬) 8>

어와 져므러 간다 연식(宴息)*이 맘당토다

비 뵈터라 비 뵈터라

ㄱ는 눈 뵈린 길 불근 곳 훑터딘 뒤 흥치며 거러가셔
흥겨움을 자아내는 경치를 색채의 대비를 통해 드러내고 있음
지국총(至芻兪) 지국총(至芻兪) 어스와(於思臥)

설월(雪月)이 서봉(西峯)의 넘도록 송창(松窓)을 비겨 잇자 <동(冬) 10>

* 파랑성 : 물결이 일렁이는 소리.

* 딴훤 : 세속의 시끄러운 소리.

* 연식 : 편안히 쉼.

고전 시가 05

위백규, 「농가 구장」

작품 해석의 객관적 기준

○ 「농가 구장」

- : 농촌을 건강한 노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보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농민의 삶을 그린 시조
- : 화자는 농민으로 설정되어 있음 → 실제로 영농(營農)에 참여한 경험을 가진 작가가 자신의 생활을 농민의 생활과 동일시하고, 농촌 생활에서 느끼는 만족감을 드러내고자 한 의도에 따른 것
- : 농촌 구성원의 공동체적 생활 태도를 부각함
- : 하루 일과의 순차적 제시, 일상적 소재의 활용 등 농민의 생활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농촌을 생생하게 묘사함

서산의 도들벗 서고 구움은 느제로 내다
아침 무렵이 배경임을 드러냄 : 농촌 일과의 시작
비 뒛 무근 풀이 뉘 밧시 짓터든고

두어라 츠례지운 날이니 밋는 다로 밋오리라 <제1수>

도롱이에 흙의* 걸고 쏴 곱은 검은 쇼 물고
일상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농민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음
고동풀 쏴 머기며 깃물 굿* 느려갈 제

어딴서 품 진 벗님 흙씩 가자 흐느고 <제2수>

둘너내자 둘너내자 긴츠골 둘너내자 '둘너내자'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드러냄

바라기 역고를 골골마다 둘너내자

쉬 짓튼 긴 스래는 마조잡아 둘너내자 <제3수>

썸은 듣는 대로 듯고 벗은 쥘 대로 쥘다

대구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냄
청풍의 옷깃 열고 긴파람 흘리 불 제

어딴서 길 가는 소님넌 아는 드시 머무느고 <제4수>

헝기에 보리 밋오 사발의 콩넵치라

내 밥 만 흘세요 네 반찬 적글세라

소박한 밥과 반찬으로 식사를 함께 하며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 : 공동체적 생활 태도

먹은 뒛 혼숨 증경이야 네오 내오 다 흘소나
설의적인 표현으로 농촌 생활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부각

<제5수>

*흙의 : 호미.

*깃물 굿 : 나무와 풀이 무성하게 난 시냇가.

돌아가자 도라가자 **히** 지거단 도라가자

저녁 무렵이 배경임을 드러냄 : 농촌 일과의 끝

계변의 손발 식고 흙의 메고 돌아올 제

어디서 **우배초적***이 **흙** 씹 **가자** **빅아논고***

풀피리 소리를 의인화한 표현을 활용 :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친근감을 드러냄

<제6수>

면해는 세 득래 네 득래요 일원 벼는 찢는 모가 곱논가

오뉴월이 언제 가고 칠월이 봄이로다

아마도 하느님 너희 삼길 제 날 위하야 삼기샀다

<제7수>

아히는 낙기질 가고 집사람은 저리척* 친다

새 밥 닉을 싸에 새 술을 걸려셔라

아마도 밥 들이고 잔 자בל 싸여 **호흠*** **계워** **호노라**

화자의 정취를 표현하여 농촌 생활에서 느끼는
만족감을 드러냄

<제8수>

취하느니 늘그니요 웃논이 아희로다

흐튼 순빅 흐린 술을 고개 수겨 권힐 싸여

뉘라서 흐르장고* 긴 노래로 차례 춤을 미루논고

<제9수>

*우배초적(牛背草笛) : 소의 등에 타고 가면서 부는 풀피리 소리.

*빅아논고 : 재촉하는고.

*저리척 : 저리김치. 종갈이로 담은 김치.

*호흠 : 기쁨.

*흐르장고 : 흙장구.

고전 시가 06

정극인, 「상춘곡(賞春曲)」

작품 해석의 객관적 기준

○ 화자의 이동 공간

수간모옥

→

정자

→

시냇가

→

봉두

홍진(紅塵)에 못친 분네 이내 생애(生涯) 엇더흔고

넋사랑 풍류(風流)를 미출가 못 미출가
 선인들이 느꼈던 풍류를 긍정적으로 여기며 따르고자 하고 있음
 천지간(天地間) 남자(男子) 몸이 날만흔 이 하건마는

산림(山林)에 못쳐 이서 지락(至樂)을 맛 볼 것가
 자연 속 삶의 즐거움을 모르는 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이 나타남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얹피 두고
 화자가 '홍진에 못친 분'과 달리 자연에 둘러싸여 삶을 영위해 나가는 생활공간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어서라
 아름다운 자연을 그것의 주인이라는 마음을 갖고 즐기는 화자의 태도
 엇그제 겨을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도화 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뛰여 잇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 중(細雨中)에 프르도다

색채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소재들을 활용하여
 정경의 아름다움을 부각

칼로 몰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스롭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계워

소리마다 교태(嬌態)로다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생동감을 부각하며
 자연으로부터 얻은
 화자의 감흥을 드러냄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興)이익 다룰소나

시비(柴扉)에 거러 보고 정자(亭子)애 안자 보니

사방이 트여 있음 : '수간모옥'보다 자연을 잘 접할 수 있는 공간
 소요음영(逍遙吟詠)* 하야 산일(山日)이 적적(寂寂)흔디

한중진미(閑中眞味)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이바 니웃드라 산수(山水) 구경 가자스라

화자의 의식이 지향하는 자연의 범위가 '산수' 전반으로 확장됨

답청(踏青)*으란 오늘 하고 욕기(浴沂)*란 내일(來日) 하세

아춤에 채산(採山)하고 나조히 조수(釣水)하세

자연에서 생활하며 하고 싶은 일들을 열거 :
 자연에서의 생활에 몰입하고자 하는 의욕을 드러냄

* 울울리에 : 뽕뽕하게 우거진 속에.

* 소요음영 : 천천히 거닐며 나직하게 읊조림.

* 답청 : 봄에 파란 풀을 밟고 노는 것.

* 욕기 : 기수(沂水)에서 목욕한다는 뜻으로, 명리를 잊고 유유자적함을 이룸.

꺾 괴여 닉은 술을 갈건(葛巾)으로 밧타 노코

곳나모 가지 것거 수노코 먹으리라

화풍(和風)이 건듯 부러 녹수(綠水)를 건너오니

청향(清香)은 잔에 지고 낙홍(落紅)은 옷새 진다

수평적 이동을 해 온 자연물에 의해 일어나는 수직적 움직임을
감각적으로 제시하여 자연과 하나 된 경지를 나타냄

준중(樽中)이 뷔엿거든 날드려 알외여라

소동(小童) 아히드려 주가(酒家)에 술을 물어

얼운은 막대 집고 아히는 술을 메고

미음완보(微吟緩步)*하야 시냇 ㄱ의 호자 안자

명사(明沙) 조흔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청류(清流)를 굽어보니 썬오느니 도화(桃花) | 로다

무릉(武陵)이 갓갑도다 저 밭이 권 거이고

'시냇 ㄱ'에서 화자가 느끼는 감흥: 자신이 있는 공간이 무릉과 가깝다고 느낌

송간(松間) 세로(細路)에 두견화(杜鵑花)를 부치 들고

봉두(峯頭)에 급피 올라 구름 소기 안자 보니

화자의 정신적 경지의 상승과 대응

천촌만락(千村萬落)이 곳곳이 버려 잇네

연하일휘(煙霞日輝)*는 금수(錦繡)를 재פת는 듯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유여(有餘) 흘샤

공명(功名)도 날 썬우고 부귀(富貴)도 날 썬우니

주객이 전도된 표현

청풍명월(淸風明月) 외(外)에 엇던 벼이 잇스올고

자연 친화적인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태도

단표누항(簞瓢陋巷)에 훗튼 혜음 아니 하네

부귀공명을 탐하지 않고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을
지향

아모타 백년행락(百年行樂)이 이만흔 들 엇지하리

* 미음완보 : 나직이 읊조리며 천천히 걸음.

* 연하일휘 : 안개와 노을과 빛나는 햇살.

고전 시가 07

정철, 「속미인곡(續美人曲)」

작품 해석의 객관적 기준 ①

‘구준비’와 ‘낙월’의 속성

구준비	낙월
빛이 없음	빛을 냄
시각, 청각, 촉각 자극	시각 자극
국한된 공간에 내림	광대한 공간을 비춤
낮이든 밤이든 내릴 수 있음	밤에만 볼 수 있음
우울한 이미지	청아한 이미지

작품 해석의 객관적 기준 ②

○ 「규원가」

: 이미 부재한 상황에서 오지 않는 입에 대한 원망을 노래하고, 여성의 한스러운 생활과 고독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속미인곡」과 유사함

: 특히 ‘꿈’이라는 공통 제재를 활용하여 화자의 인식 및 정서를 드러내고 있음

간장(肝腸)이 구곡(九曲) 되야 구비구비 쓴쳐서라

출하리 잠을 드러 꿈의나 보려 하니

현실의 괴로움으로 인해 꿈을 꾸려 함: 꿈에서 상대를 만나고자 의도적으로 잠을 청함

바람의 디는 입과 풀 속에 우는 증생

깨고 싶지 않은 잠에서 깨어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방해물의 역할

므스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오는다

- 허난설헌, 「규원가 (閨怨歌)」

갑녀: 데 가는 더 각시 본 듯도 혼녀이고

갑녀가 을녀를 과거에 만났던 적이 있음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었디야 니별(離別)하고

을녀가 살았던 곳을 갑녀가 알고 있음 갑녀는 을녀가 과거에 살던 곳에서 떠난 이유를 몰랐음

히 다 더 저른 날의 놀을 보라 가시느고

을녀: 어와 네여이고 내 스쥔 드러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암 즉훈가마는

엇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녀기실식

나도 님을 미더 군쁘디 전혀 업서

이턱야 교턱야 어러이 호똥쨌디
반기시는 늦비치 네와 엇디 다르신고
누어 싱각호고 니러 안자 헤여하니
내 몸의 지은 죄 뵈기 빠허시니
하늘히라 원망하며 사름이라 허물하라
설워 플터 헤니 조물(造物)의 타시로다

갑녀: **글란 싱각 마오** 을녀: 미친 일이 이셔이다
을녀가 너무 자책하지 않기를 바람

님을 뵈셔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믈 그튼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일고
춘한고열(春寒苦熱)은 엇디하야 디내시며
추일동턴(秋日冬天)은 뉘라셔 뵈섯는고
죽조반(粥早飯) 죠석(朝夕) 뵈 네와 그티 세시논가
기나긴 밤의 잠은 엇디 자시논고
님다히 소식(消息)을 아므려나 아자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닉일이나 사름 올라
내 믈음 둘 디 엇다 어드러로 가쟈 말고
잡거니 밀거니 눅픈 뵈히 올라가니
구름은쿠니와 안개는 믈스 일고
산천(山川)이 어둡거니 일월(日月)을 엇디 보며
지척(咫尺)을 모르거든 천 리(千里)를 브라보라
출하리 믈그의 가 뵈 길히나 보라 하니
뵈람이야 뵈결이야 어둥정 된더이고
샤공은 어딴 가고 뵈 뵈만 걸렸는고
강턴(江天)의 혼자 셔셔 디는 히를 구버보니
님다히 소식(消息)이 더욱 아득흔더이고
모첨(茅簷) 춘 자리의 밤등만 도라오니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늘 위하야 불갓는고
오르며 느리며 헤쓰며 바자니니
저근덧 녀진(力盡)하야 풋즘을 잠간 드니

정성(精誠)이 지극하야 꿈의 님을 보니
임에 대한 자신의 간절한 마음과 노력이 꿈에서 임을 만나게 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여김
옥(玉) 그튼 얼굴이 반(半)이 나마 늘거세라

막 옴의 머근 말숨 슬궤장 숲자 하니

눈물이 바라 나니 말숨인들 어이흐며

정(情)을 못다 하야 목이조차 메여하니

꿈속 체험을 제시함으로써 꿈을 깬 때 화자가 느낀 아쉬움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음:
꿈속에서 무엇을 보았고, 누구를 만났으며, 자신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

오던된 계성(鷄聲)의 잠은 엇디 썩듯던고
깨고 싶지 않은 잠에서 깨어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방해물의 역할
어와 허스(虛事)로다 이 님이 어딴 간고

결의 니러 안자 창(窓)을 열고 바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썩이로다

출하리 식여디여 낙월(落月)이나 되야 이셔

님 거신 창(窓) 안히 번드시 비최리라

갑녀: 각시님 돌이야크니와 구준비나 되쇼셔

* ‘낙월’ 대신 ‘구준비’를 선택한 이유

- 1) 빛이 없어 어두운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임에게 버림받은 여인의 침울한 심정을 나타내기엔 더 적절함
- 2) 눈을 감고 잠을 청하면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소리로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임이 직접 비를 만져 볼 수도 있음
- 3)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내리므로 임에게 더욱 집중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음
- 4) 밤과 낮이라는 시간에 대한 제한 없이 내리면서 아무 때나 임에게 머물러 있을 수 있음

고전 시가 08

박인로, 「선상탄(船上嘆)」

작품 해석의 객관적 기준 ①

○ 노계 박인로

- : 조선의 혼란기였던 16, 17세기에 걸쳐 작품 활동을 함
- :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참전했던 특이한 경험을 가지고 있음
- 전쟁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왜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표출되기도 함

○ 「선상탄」

- : 박인로가 부산에 통주사(統舟師)로 부임하여 국경을 지키며 지은 작품
- : 전란이라는 현실 문제를 다루면서도 전쟁과 관련한 관념적인 접근을 보여 주고 있음
- : 씩씩한 기상을 살려 나라를 위해 충성하겠다는 다짐과 태평성대를 염원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음

늘고 병(病)든 몸을 주사(舟師)로 보늬실식

을사(乙巳) 삼하(三夏)에 진동영(鎭東營) 느려오니

관방중지(關防重地)에 병(病)이 깊다 안자실랴
전란의 현장에서 느끼는 책임감

일장검(一長劍) 비기 주고 병선(兵船)에 구테 올라

여기 진목(勵氣瞋目)*하야 대마도(對馬島)을 구어보니

벽람 조친 황운(黃雲)은 원근(遠近)에 사혀 잇고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배경이 되는 공간의 분위기를 전달

아득한 창파(滄波)는 긴 하늘과 혼 빚칠쇠

* 여기 진목 : 기운을 떨치고 눈을 부릅뜸.

선상(船上)에 배회(徘徊)하며古今(古今)을 사억(思憶)하고

어리 미친 회포(懷抱)에 현원씨(軒輊氏)*를 애드노라
전란의 원인이 배를 만든 사람에게 있다고 볼 : 전란에 대한 관념적 인식 경향
대양(大洋)이 망망(茫茫)하야 천지(天地)에 둘러시니

진실로 빅 아니면 풍파 만 리(風波萬里) 빛기 어둠 사이(四夷) 엿볼넌고

무슴 일 흐려 하야 빅 못기를 비롯하고

만세천추(萬世千秋)에 ㄴ업슨 큰 폐(弊) 되야

보천지하(普天之下)에 만민원(萬民怨) 길우느다

어즈버 썩드라니 진시황(秦始皇)의 타시로다
‘왜’와 대적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원망스러움을 표출
빅 비록 잇다 하나 왜(倭)를 아니 삼기던들

일본(日本) 대마도(對馬島)로 뵈 빅 절로 나올넌가

뉘 말을 미더 듯고 동남동녀(童男童女)를 그딴도록 드러다가

해중(海中) 모든 섬에 난당적(難當賊)을 기쳐 두고

통분(痛憤)흔 수욕(羞辱)이 화하(華夏)에 다 밋나다

장생(長生) 불사약(不死藥)을 얼미나 어더 닌여

만리장성(萬里長城) 눅히 사고 몇 만 년(萬年)을 사도쥔고

눔되로 죽어 가니 유익(有益)흔 줄 모르로다

어즈버 싱각하니 서불(徐市) 등(等)이 이심(已甚)하다

인신(人臣)이 되야서 망명(亡命)도 흐는 것가

신선(神仙)을 못 보거든 수이나 도라오면

주사(舟師) 이 시림은 전혀 업게 삼길렀다

두어리 기왕불구(既往不咎)*라 일너 무엇 흐로소니
과거의 사건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그만두려는 화자의 마음
속절업슨 시비(是非)를 후리쳐 더더 두자

잠사 각오(潛思覺悟)하니 내 뜻도 고집(固執)고야

황제(黃帝) 작주거(作舟車)는 윈 줄도 모르로다

장한(張翰) 강동거(江東去)애 추풍(秋風)을 만나신들
배가 있어야만 풍류도 즐길 수 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인용한 소재
편주(扁舟) 곳 아니 타면 천청 해활(天淸海濶)*하다

어둠 흥(興)이 절로 나며 삼공(三公)도 아니 밋골

제일 강산(第一江山)애 부평(浮萍) ㄴ흔 어부 생애(漁夫生涯)을

진시황: 진나라의 황제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일본을 비롯한 여러 섬에 수천 명의 사람을 보냈다고 함. 이들이 일본인의 조상이 되었다는 설이 있음.

장한 강동거: 이백이 장한이라는 옛 인물을 언급하며 장씨 성을 가진 벗이 벼슬을 버리고 강동으로 떠나간 것을 서운해하면서 시를 지은 바 있음. 장한은 가을바람이 불어오자 고향의 음식이 먹고 싶어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함.

* 현원씨 : 중국 고대 전설상의 제왕. 배와 수레를 처음 만들었다고 전해짐.

* 기왕불구 : 이미 지나간 일을 허물하지 않음.

* 천청 해활 : 하늘이 맑고 바다가 넓음.

일엽주(一葉舟) 아니면 어딴 부쳐 든힐논고

일언 닐 보진된 비 삼긴 제도(制度)야

지묘(至妙)흔 덧하다마는 엇디흔 우리 물은

늑는 듯흔 판옥선(板屋船)을 주야(晝夜)의 빗기 타고

임풍 영월(臨風咏月)호되 흥(興)이 전혀 업는 게오

석일(昔日) 주중(舟中)에는 배반(杯盤)이 낭자(狼藉)터니

금일(今日) 주중(舟中)에는 대검 장창(大劍長槍)뿐이로다

흔가지 비언마는 가진 비 다라니

기간(其間) 우락(憂樂)이 서로 꺾지 못하도다

시시(時時)로 멀이 드러 북신(北辰)을 브라보며

상시(傷時) 노루(老淚)를 천일방(天一方)의 디이느다

오동방(吾東方) 문물(文物)이 한당송(漢唐宋)애 디라마는

국운(國運)이 불행(不幸)하야 해추 흥모(海醜兇謀)*애 만고수(萬古羞)을 안

고 이셔

백분(百分)에 흔 가지도 못 시셔 브려거든

이 몸이 무상(無狀)흔 들 신자(臣子) | 되야 이셔다가

궁달(窮達)이 길이 달라 몬 뵈옵고 늘거신들

우국 단심(憂國丹心)이야 어딴 각(刻)애 이즐넉고

의문형의 문장: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겠다는 것을 통해 화자의 변치 않는 마음을 확인

강개(慷慨) 계운 장기(壯氣)는 노당익장(老當益壯) 하다마는

도고마는 이 몸이 병중(病中)애 드러시니

설분신원(雪憤伸冤)이 어려울 듯 하건마는

그러나 사제갈(死諸葛)도 생중달(生仲達)을 멀리 좃고

현재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

발 업슨 손빈(孫)도 방연(龐涓)을 잡아거든

죽은 제갈량이 살아 있는 중달을 도망가게 함: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본분을 다해 나라를 지키겠다는 다짐

흐믓며 이 몸은 수족(手足)이 꺾자 잇고 명맥(命脈)이 이어시니

서절구투(鼠竊狗偷)*을 저그나 저흘소냐

비선(飛船)애 들러드려 선봉(先鋒)을 거치면

구시월(九十月) 상풍(霜風)애 낙엽(落葉)가치 헤치리라

비유적 표현: 왜적을 무찌르겠다는 화자의 의지

칠종칠금(七縱七擒)을 우린들 못 흔 것가

'왜'를 물리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기개

준피 도이(蠹彼島夷)*들아 수이 결항(乞降)하야스라

왜적에 대한 적개심과 함께 왜적을 물리칠 수 있다는 씩씩한 기상을 확인

* 해추 흥모: 바다 도적의 음흉한 모략. * 서절구투: 쥐가 도둑질하듯 하고 개가 남의 것을 훔치듯 함.

* 준피 도이: 꾸물거리는 저 섬나라 오랑캐.

'일엽주'와 비교하면서
 '판옥선'을 타며 느끼는 괴로움을 호소:
 현재 상황에 대한 한탄을 드러냄

유사한 구절을 반복하여
 과거와 대조적인 현재의 상황을 부각

사제갈, 생중달: 제갈량이 죽은 후 제갈량을 본뜬 나무 조각상을 수레에 앉혔는데, 중달이 이를 보고 놀라 도망갔다고 함.

칠종칠금: 제갈량이 남만의 왕인 맹획을 일곱 번 놓아 주고 일곱 번 사로잡았다고 함.

항자 불살(降者不殺)이니 너를 구티 섬멸(殲滅)하라

오왕(吾王) 성덕(聖德)이 욕병생(欲竝生)하시니라

태평천하(太平天下)에 요순 군민(堯舜君民) 되야 이서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

일월 광화(日月光華)는 조부조(朝復朝)하얏거든

전선(戰船) 트던 우리 몸도 어주(漁舟)에 창만(唱晩)하고

추월 춘풍(秋月春風)에 눕히 베고 누어 이서

성대(聖代) 해불양파(海不揚波)*를 다시 보려 하노라
태평성대를 염원하는 마음

* 해불양파 : 바다에 물결이 일지 아니함.

요순: 요임금과 순임금. 중국 고대 전설상의 임금으로, 두 임금이 왕위에 오른 뒤에는 태평성대가 지속되었다고 함.

고전 시가 09

작자 미상, 「원산 아리랑(신고산 타령)」

작품 해석의 객관적 기준

○ 민요(民謠)의 종류

- ① 고정 민요: 지역 고유의 특징을 반영하면서 특정 지역에서 전승
- ② 유행 민요: 보편적인 정서를 담고 있어 지역적인 한계를 넘어서 널리 불림

○ 「아리랑」의 성격

: 가창되는 지역에 따라 독자적인 노랫말과 후렴구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고정 민요의 성격을 가짐

: 남녀 간의 사랑이나 집단 차원의 공통된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행 민요의 성격도 가짐

서울과 원산을 잇는 철로인 경원선에 신고산이라는 역이 생기면서, 그 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던 고산은 구고산이라 불리게 됨.

임이 타고 떠나는 수단으로, 임과의 이별이 임박했음을 드러냄

신고산이 우루루 **함흥 차** 가는 소리에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부각

구고산 큰애기 반봇집만 싣다

어랑어랑 어허야 어야 더야 내 사랑아

후렴구의 반복: 운율감 형성

가을바람 소슬하니 낙엽이 **우수수** 지고요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심리

귀뚜라미 슬피 울어 남은 간장 다 썩이네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부각

어랑어랑 어허야 어야 더야 내 사랑아

임에 대한 감정: 유행 민요

: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자아냄

휘늘어진 **낙락장송** 휘어 덩석 잡고요

화자가 자신의 시름을 풀 수 있는 대상

애달픈 이내 진정 하소연이나 할까나

어랑어랑 어허야 어야 더야 내 사랑아

삼수갑산 **머루** 다래는 **엷으려** **섬으려**졌는데

화자의 상황과 대비되는 대상으로, 임과 헤어진 화자의 처지를 환기

나는 언제 임을 **엷으려** **섬으려**지느냐

구절의 반복: 운율감 형성

어랑어랑 어허야 어야 더야 내 사랑아

상갯골 큰애기 정든 임 오기만 **기다리고**

삼천만 우리 동포 **통일**되기만 **기다린다**

통일에 대한 언급: 유행 민요

어랑어랑 어허야 어야 더야 내 사랑아

▶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함

가지 마라 잡은 손 야멸차게 떼치고

갑사당기 팔라당 후치령* 고개를 넘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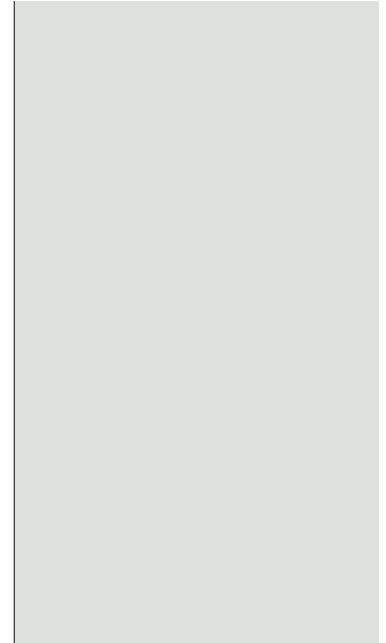
임의 뒷모습과 관련된 장신구로, 화자를 떠나가는 임의 모습을 의미
어랑어랑 어허야 어야 더야 내 사랑아

울적한 심회를 풀 길이 없어 나왔더니

처량한 산새들은 비비배배 우노나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부각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자연물로,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를 나타냄
어랑어랑 어허야 어야 더야 내 사랑아

* 후치령 : 함경남도 풍산군과 북청군을 잇는 고개.



고전 시가 09

작자 미상, 「밀양 아리랑」

작품 해석의 객관적 기준

○ 민요(民謠)의 종류

- ① 고정 민요: 지역 고유의 특징을 반영하면서 특정 지역에서 전승
- ② 유행 민요: 보편적인 정서를 담고 있어 지역적인 한계를 넘어서 널리 불림

○ 「아리랑」의 성격

: 가창되는 지역에 따라 독자적인 노랫말과 후렴구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고정 민요의 성격을 가짐
: 남녀 간의 사랑이나 집단 차원의 공통된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행 민요의 성격도 가짐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구절의 반복: 운율감 형성

등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 입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심리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리 얼시구 아라리가 났네

후렴구의 반복: 운율감 형성

정(情)든 임 오시는데 인사를 못 해

임에 대한 감정: 유행 민요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뻥긋

○ :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자아냄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리 얼시구 아라리가 났네

→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함

세상에 핀 꽃은 울긋불긋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부각

구절의 반복: 운율감 형성

내 마음에 핀 꽃은 울렁울렁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리 얼시구 아라리가 났네

저 건너 대숲은 의의(依依)한데*

아랑*의 설은 넋이 애달프다

가창 지역에서 전해지는 전설과 관련된 인물 : 고정 민요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리 얼시구 아라리가 났네

영남루* 비친 달빛 교교한데

구체적 지명 언급 : 고정 민요

남천강* 말없이 흘러만 간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리 얼시구 아라리가 났네

* 의의한데 : 풀이 무성하여 싱싱하게 푸른데.

* 아랑 : 밀양 지방에서 전해지는 아랑 설화의 인물로, 자신을 사모하는 통인에 의해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는 전설이 전해짐.

* 영남루, 남천강 : 밀양 지방에 있는 누각과 강.

고전 시가 10

작자 미상, 「방물가(房物歌)」

작품 해석의 객관적 기준

○ 「방물가」

: 방물은 일반적으로 여자가 쓰는 화장품, 바느질 기구, 패물 따위의 물건

: 이별을 앞둔 남녀의 대화로 이루어진 이 작품에서 남성은 자신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여성의 요구를 물질에 대한 요구로 전환한 뒤, 크고 좋은 집과 값비싼 방물들을 제시하며 여성을 달래려 하고 있음

: 남성의 말에서 **값비싼 재화들이 필요 이상으로 화려하고 다양하게 제시됨**

→ 진지함보다는 흥미로운 요소들을 강조하여 청자의 관심을 유도했던 잡가의 일반적 속성과 연결된 것

이별을 앞둔 남녀의 갈등을 담고 있는 내용이면서도 '방물가'라는 제목이 붙은 것은 작품의 상황보다 등장하는 소재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

상대가 자신을 데려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솔직히 드러냄

서방님 정(情) 떼고 정(正) 이별한대도 날 버리고 못 가리라.

금일 송군(送君) 임 가는 데 백년 소첩(百年小妾) 나도 가오.

날 다려 날 다려 날 다려가오. 한양 낭군님 날 **다려가오**.

나는 죽네 나는 죽네 임자로 하여 나는 죽네.

자신의 고통을 강조함으로써 상대의 마음을 돌리려 함

네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네 소원을 다 일러라.

상대의 소원을 거둬들여 묻는 것은 다양한 방물을 언급하기 위한 장치에 해당함
 제일명당 터를 닦아 **고대광실(高臺廣室)** 높은 집에

대화를 통해 상황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드러냄

내외 분합(分閤)* 물림되며 고불도리 선자(扇子)추녀* 형당그렇게 지어나

주랴.

네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네 소원을 다 일러라.

이별의 아픔도
 물질적인 것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인식

연지분 주랴. 면경 석경* 주랴 옥지환(玉指環)* 금봉차(金鳳釵) 화관주(花

冠珠) 땀 머리 칠보(七寶) 족두리 **하어나 주랴**

네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네 소원을 다 일러라. **세간치레**를 하어나 주랴.

용장(龍幟) 봉장(鳳幟)* 깃도리 책상이며 자개 함룡(函籠) 반다지 삼층

각계수리 이층 들미장에 원앙금침(鴛鴦衾枕) 잣베게

셋별 같은 **쌍요강** 발치 발치 던져나 주랴.

대상의 특성을 직유법을 사용하여 나타냄

○ : 같은 어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

* 분합 : 주로 대청과 방 사이 또는 대청 앞쪽에 다는 네 쪽 문.

* 선자추녀 : 서까래를 부챗살 모양으로 댄 추녀.

* 면경 석경 : 주로 얼굴을 비추어 보는 작은 거울.

* 옥지환 : 옥가락지.

* 용장 봉장 : 용의 모양을 새긴 옷장과 봉황의 모양을 새긴 옷장.

네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네 소원을 다 일러라. 의복 치레를 하여나 주랴.
보라 항릉(亢綾) 속저고리 도리볼수 겹저고리 남문대단 잔솔치마
백방수화주 고장바지 물면주 단속곳에 고양이 속버선에 몽고삼승 겹버
선에
자지 상직 수당혜(繡唐鞋)를 명례궁(明禮宮) 안에 맞추어 주랴.
네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네 소원을 다 일러라. 노리개 치레를 하여나 주랴.
은(銀)조로롱 금(金)조로롱 산호(珊瑚)가지 밀화불수(蜜花佛手)*
보석으로 된 다양한 ‘노리개’들: 감상자의 흥미를 유도하려는 창자의 의도 반영
밀화장도(蜜花粧刀) 곁갈이며 삼천주 바둑실을 남산더미만큼 하여나 주랴.
과장법을 통해 자신의 제안을 강조
나는 싫소 나는 싫소 아무것도 나는 싫소.
‘나는 싫소’의 반복: 물질보다 사랑을 우선시하는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함
고대광실도 나는 싫고 금의옥식(錦衣玉食)도 나는 싫소.
워낭충충 걷는 말에 마부담(馬負擔)*하여 날 다려가오.

* 밀화불수 : 부처의 손 모양으로 만든 보석 노리개.

* 마부담 : 말에 얹음.

고전 시가 11

작자 미상, 「남과탄(南瓜歎)」

작품 해석의 객관적 기준

○ 정약용의 문학 작품

: 일상적 현실의 반영

○ : 시에 일상적 소재를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

→ 시적 자아의 일상 생활인으로서의 성격, 일상적 소재와 신변잡사의 시적 수용 등을 통해 확인됨

: 시란 현실을 사실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삶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봄

→ 실용을 중시한 정약용의 가치관과도 연결됨

곳은비 열흘 만에 여기저기 길 끊기고

성안에도 시골에도 밥 짓는 연가 사라져

궁핍한 현실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상황이라는 것으로, 시가 현실을 보여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부합함

태학에서 글 읽다가 집으로 내 돌아와

‘태학’은 현실적 문제와 동떨어져 있는 공간으로, ‘야단법석’이 일어난 ‘집’과 구별됨
 문안에 들어서자 시골시골 야단법석

들어 보니 며칠 전에 끼닛거리 떨어져서

일상 생활인으로서 신변잡사를 통해 느끼는 감정을 전달

호박으로 죽을 쑤어 허기진 배 채웠는데

어린 호박 다 뺏으니 이 일을 어찌할꼬

늦게 핀 꽃 지지 않아 열매 아직 안 맺었네

항아리만큼 커다란 옆집 밭의 호박 보고

계집종이 남몰래 그걸 훔쳐 가져와서

‘계집종’은 ‘끼닛거리’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호박을 훔쳐 ‘충성’을 보임

충성을 바쳤으나 도리어 맞는 야단

누가 네게 훔치랬냐 회초리 꾸중 호되네

어허 죄 없는 아이 이제 그만 화를 푸소

이 호박 나 먹을 테니 더 이상 말을 말고

‘나’는 아내를 달래며 아내에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제안함

밥주인에게 땃땃이 사실대로 얘기하소

오름에 살던 진중자. 형이 의롭지 못하다 하여 홀로 오름에서 청렴한 삶을 살았다고 전해지는 인물

오름 중자 작은 청렴 내 아니 달갑다네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청렴이라는 가치와 생계의 문제에 대해 돌아봄

나도 장차 때 만나면 청운에 오르겠지만

‘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자조를 내비치고 있음

그게 되지 않으면 금광 찾아 나서야지

만 권 서적 읽었다고 아내 어찌 배부르랴

화자가 관심을 기울인 대상으로, ‘끼닛거리’에는 도움이 되지 않음

밥 두 뼤기만 있어도 계집종 죄 안 지었으리

화자가 갖지 못한 것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화자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